

우리 사회 모든 여성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

서울YWCA

여성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돌봄

환경

영성

평화

2001. 4. 22



일회용품 안 쓰기 캠페인

일주일에 한 번 분리배출하고
회수되지 않는 일회용품 쓰지 말자!
용감하게 쓰레기 줍고
품위있게 쓰레기 버리지 말자!

서울Y는 2001년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일회용품 안 쓰기 캠페인을 연다. 차 없는 거리 세종로를 거닐며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주제로 4행시 짓기,
마스코트와 함께 사진 찍기 등의 이벤트로 시민들의 시선을 모은다.



일회용품의 전국 패스트푸드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 최초 '일회용품 안 쓰는 패스트푸드 시범점' 롯데리아 관철점이 개점한다(2001년 4월 27일).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3월 공동기도

하나님,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마치 생명의 찬가처럼 들립니다.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평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외로움 속에서도 차마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십자가를 향해 뚝뚝뚝 걸어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4월 공동기도

하나님, 기후위기로 인해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나날입니다. 그래도 하늘을 즐기며 나는 새들의 비상을 보게 해주시고,
꽃들이 수련거리는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는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 중심적인 삶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4 **나를 살리는 말씀**
개혁자, 파이오니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 6 **제100회 정기총회**
총회보고
창립 100년 비전선언문
2022년 서울YWCA 비전사업
2021년 사업보고
- 14 **환경과 여성**
하나님을 닮은 사람
- 16 **영화와 삶**
선거철에 보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실화
영화 <서프러제트>
- 18 **서울Y 소식**
1·2월 뉴스
3·4월 행사안내
3·4월 캘린더
- 24 **내일빛 캠페인**
- 25 **알림터**
- 28 **후원 소식**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최화란 서울YWCA 초대회장

<서울YWCA> 2022년 3·4월호
통권 제617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2년 3월 1일
발행인 이우림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배은경
편집위원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개척자, 파이오니어



장수자
 명예위원

예수 이후 최고의 복음 사역자인 사도바울은 일생을 핏대를 향해 달려간 믿음의 사람이다. 바울사도가 목표로 한 핏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행1:8). YWCA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힘있게 모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선교하는 Y로 사도바울과 동일한 핏대를 향해 달려 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Y는 파이오니어의 후예들이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 왔음을 알 수 있다. Y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고 내 삶을 뒤돌아 보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이 떠올랐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착한 일도, 봉사도 지나치게 하면 자기의에 빠지기 쉬운 데... 하는 부끄러움이 앞서 망설이다가 지나온 세월 속에 Y와 함께한 스승과 선·후배, 동료들이 고마워 펜을 들었다.

Y와의 첫 만남은 1978년 김 형 총무 재직 시 Y가 어려웠을 때, 원클럽 주부모임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부흥을 일으켰던 시절이다. 80년대 초 청소년단체 걸스카우트에서 봉사할 당시 만난 이연배 선생은 영등포지구 위원장을, 나는 서대문 지구 위원장을 맡아 함께 활동했다. 그 후 선생님은 나보다 3년 앞서 Y로 가서 회장의 역할 등 폭넓게 봉사하셨고, 나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시민대학 운영, 문화센터·시범 어린이집 개설 등 사회교육에 몸 담았다. 탁아모 교육을 실시할 때 Y와 함께 동역자로 일하게 되어 감사했다.

연희청소년회관에서 위원으로 봉사할 때 전현숙 관장과 김선

자 위원장과 기쁨으로 활동했던 때도 떠오른다. 연합회 청소년위원 시절 버들캠프장을 오가며 강의를 하기도 했다.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90년대 초 Y 홍보출판 위원을 시작해 30여년 임기 끝날 때까지 홍출에서 봉사했던 시절이다. 대학 학보사 기자 경험이 바탕이 되었고 사회에 나와 한국경제신문 산하 여권지 기자로 일했던 경험이 선물한 행복 같다. 또 하나의 추억은 본족의 복지법인 본사랑재단의 운영위원장 재직 시 서울 Y 대강당에서 장애우 합동결혼식 행사를 무료로 열었던 일이다. 취약계층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100명에게 총 1억 원 장학금을 전달한 일도 보람으로 남는다.

끝으로 나의 모교회인 정동교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 Y 사랑이 극진해 참 감사하다. 김정옥, 김갑순 선생님을 비롯해 이원희, 이유림, 신윤용 등 Y 사랑 권사님들과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니 기쁘다. 또한 천영태 담임목사님께서 Y 지도목사로 수고하시니 무엇보다 감사하다.

이제 내 나이 80,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나는 많은 분들에게 빛진 자로 살고 있다. 사도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 13:8)”**하지 않았던가! 깊어야 할 빛이 남아 있음이 행복하다. 여기에 존칭 없이 기록된 Y의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나의 스승이었고 나의 멘토였음에 감사하다. 열심히 살아온 지난 날들! 그동안 정부로부터 사회교육유공자로 표창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나 홀로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도 없었음을 경험하면서 살았다. 나를 이끌어오신 가장 위대하신 파이오니어 나의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의 인도하심을 찬양한다. Y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고하은
 대학·청년YWCA협의회 회장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눅 11:9-1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학교에 가던 학생은 모니터 앞에 앉아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었고, 직장인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교회에도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아무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대학교 2학년이던 내가 처음으로 서울Y와 인연을 맺었던 때부터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22년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겪어보는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 우울감과 좌절감을 겪기도 했으며, 새롭게 변화한 상황에 적응해 다양한 비대면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는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비록 코로나19가 완전히 소강되지 않은 채 맞이한 아쉬움이 있는 새해이지만, 한국Y와 서울Y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의미 있는 해인 '2022년, 임인년(壬

寅年)'의 시작 앞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모든 Y회원들과 공유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며, 만일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옳은 것으로 고쳐 주실 것이다.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의 준비요, 찾으라는 것은 노력하는 마음의 태도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를 통한 노력의 결실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현재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기꺼이 도전하고 노력할 때 세상은 마침내 변화할 것이다. 한국Y는 일제강점기였던 1922년에 창립되어 100주년을 맞이한 2022년에 이르기까지 탄압과 활동 중단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역경을 딛고 여성들의 자립과 발전에 힘써왔다. 그리고 많은 선배 Y회원의 기도와 헌신의 노력은 한국 사회에서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여성인권운동, 소비자운동, 돌봄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구호사업과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 속 여성들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올해 100주년이 된 Y에서 대학·청년YWCA협의회 회장으로 이를 본받아 Y(청년운동): 20대 청년으로서, W(여성운동): 여성으로서 능력을 개발하여, C(기독교 운동):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처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A(회원/국제운동): 세계 125개국 YWCA 회원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 한 해가 평안하길 기도한다. Y

제100회 정기총회

우리 사회 모든 여성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서울Y 창립 100년 비전을 선포하는 이유림 회장

서울Y는 제100회 정기총회를 1월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목적제창, 추모, 시상, 2021년 감사·결산·사업보고가 이어졌으며 202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통과됐다.

서울Y는 창립 100년을 맞아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새로운 비전 슬로건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선포했다. 2022년에는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를 중심으로 평화와 공동체적 삶, 사회적 여성 확장을 위한 22개의 프로젝트를 다양한 분야에서 펼칠 계획이다.

이유림 회장은 총회에서 창립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책무성과 공신력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사단법인으로, 서울Y가 하나님을 섬기듯 여성과 시민·지역사회를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책임 있는 운동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언제나 변화 앞에 당당히 맞서 정의와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총회는 사단법인으로는 제2회 정기총회로, 정관과 자산 총액 변경, 기본 재산 처분에 관한 안건을 논의 후 통과시켰다. 또한 창립 100년을 맞아 이사·위원·실무자가 함께 쓴 성경필사본 '씨Bible'을 봉헌했다.

감사패 증정·시상

2021년 서울Y에 도움을 준 개인과 단체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자원활동가와 실무자, 회원증모를 많이 한 회원을 표창했다

감사패(가나다순)

김진덕 정경식 재단	서도비엔아이(주)
알라딘	(재)극동방송
(주)CJ ENM커머스부문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주)엔에스쇼핑	(주)엘지생활건강
(주)잇더컴퍼니	하나금융나눔재단
김상순(후원자)	김영자(위원)
김형(증경회장)	박소현(회원)
이경연(이사)	이유림(회장)
이주영(증경회장)	조연신(부회장)
한혜영(부회장)	

근속상

30년 근속실무자	강민아
20년 근속실무자	우영숙
10년 근속강사	우성도 윤혜연

제1회 정광모상(가나다순)

김보민 김진주 박혜리

회원증모 개인상

최한나	우영숙	이종미	조연신	김혜옥	이유림
김재신	이인순	양선희	정수경	배은경	임혜원
강민아	송길례	김명희	백향덕	한혜영	이복희
조종남	김양선	성지희	최복	김선덕	민혜경
김진숙	현명금	황성연	박진선	김보민	심혜영
이경연	오점희	김은희	이옥희	김경화	정선덕
김선희	나순복	이은령	이지선	황혜진	

봉사상

50년	이명희	이영자
40년	홍근표	
30년	장명자	조길수
20년	박애경	이은령 이은숙 최혜란
	김희철	
10년	권혜진	성덕화 이경애



창립 100년 비전선언문

1922년 서울YWCA 기독교여성들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한국 여성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건설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서울YWCA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돌보며 살리는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역사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위기, 양극화, 사회갈등의 위기와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도 서울YWCA는 시대의 위기를 돌파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보기 삼아 도전적 의지와 책임감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YWCA는 창립 100년을 맞아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Y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 청년정신으로! 세상을 살리는 Y

W 기독교여성의 확장성, 사회적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는 Y

C 생태계의 회복, 더불어 살아감으로! 세상을 살리는 Y

A 정의·평화·생명 세상, 꿈꾸는 여성들과 연대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Y

서울YWCA의 새로운 비전은 사회적 책임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영성, 사회의 변화를 상상하고 만드는 운동성, 더 나은 세상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사회혁신과 변화를 위해 5대 목표를 수립한다.

하나, 기독교 정신을 사회적 언어로 소통하며 실천한다.

하나, 회원·시민과 함께 기독교여성주의, 기후 위기대응, 평화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 변화를 이끈다.

하나, 서울YWCA 정체성 강화와 공유를 위해 중장기 고도화 사업에 주력한다.

하나,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포용적 조직문화를 확립한다.

하나, 세대, 성별, 지역 차이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 처음학교로 자리매김한다.

서울YWCA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며, 정의와 평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2022. 1. 20.
사단법인 서울YWCA

2022년 서울YWCA 비전사업

서울YWCA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서울Y는 1만명의 여성활동가와 함께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2022년은 22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평등을 넘어 평화로

- 성차별 미디어 아카이빙
-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 제작
-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 미안마 여성 역량강화 프로젝트
- 북한이탈청소년 영어교육 및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 Y-틴 평화아카데미
- 청소년 평화 견기
-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 이야기마당
- 디아스포라 여성청년과 함께하는 평화의 밥상
- 시민건강교실 - 여성 생애주기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 기후위기 대응 지구사랑 기부 챌린지
- 재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살고 살리는' 멘토링
- 서울YWCA 창립 100년 기금 모금 내일빛 캠페인
- NO 그린워싱! 기업 친환경성 평가 프로젝트
- 지구를 치유하는 가치 소비 확산 프로젝트
- 건강용품 소비자 안전 리포트
- Y-틴, 대학청년Y 회원 멘토링
- 돌봄과살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2022 서울YWCA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 목회자를 위한 성평등 교회 운영 매뉴얼 제작
- 교회 리더십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
- 기독교시니어아카데미 개설
- 생애주기별 여성을 위한 예배

2021년 사업보고

‘회복’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 전개



양선희 사무총장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15-16

서울YWCA 창립 99년! 사단법인 전환과 창립 100년 준비라는 굵이굵이 길을 걷는 동안, 눈과 귀와 마음과 이름으로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과 확산으로 자주 멈춰하면서도 창립 99년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이룬 해였습니다. 창립 99년의 주제를 ‘회복’으로 정하고, 기도와 말씀에 기초한 영성 회복, 활동가·회원·시민 서로의 관계와 소통 회복, 단절에서 연결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단법인 전환, 5개년 비전 수립

사단법인 전환을 준비하면서 “여성과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는 5개년 비전을 수립하고 법인 설립·운영과 지역운동의 목표, 핵심가치, 전략과 프로그램을 세웠습니다. 법인 설립·운영은 5월 27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어, 자치성과 책무성을 가진 공익법인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역운동은 “1만명의 여성활동가와 함께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를 목표로 영성·운동성·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삼고, YWCA 창립목적인 정의·평화·생명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정책

YWCA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동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운동, 젠더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으로 전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운동은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힘썼습니다. 기업과 함께 배송포장 폐기물 줄이기 캠페인을 펼쳐 사회적 인식과 실천 확산에 기여했고, 저탄소 농산물 홍보를 활성화하여 저탄소농산물의 ‘소비-유통-생산’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했습니다. 서울Y 활동가부터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본부, 부속시설별로 참신하고 유쾌한 캠페인을 지속했고, 시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그린소비 실천활동을 펼쳤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그린배송 지구’를 부탁해 캠페인 선언식

젠더평등운동은 성평등 미디어운동과 기독교여성주의 운동에 주력했습니다.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은 OTT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로 영역을 넓혀 성평등 미디어 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여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독교여성주의 운동은 교회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여성주의 예배를 통해 신앙과 페미니즘의 공존을 모색했습니다.



젠더 균형 보도를 위한 온라인 집담회

평화통일운동은 청소년과 청년의 현장중심 활동으로 전개했습니다. 평화통일리더단 피스톡톡을 조직, 청(소)년 평화활동가 양성에 앞장섰으며, 평화통일 세미나와 리더양성 교육·워크숍을 열어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이탈 여성과 고려인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여 당사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으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MZ세대와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다’

부속시설

부속시설은 코로나 확산으로 소통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적응하며 책무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봉천, 영등포, 노원, 강남지부는 다양한 온라인 방식을 개발·도입하여 프로그램과 활동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누리봄은 공동작업장 '봄봄' 운영, 주거지원사업 확대, 자조모임 활성화로 폭력피해 여성들의 자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왔습니다.

회원활동

회원활동은 사단법인 회원규정을 새로 마련, 회원구조를 정비하였고 회원정보관리시스템(DONUS)을 도입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회원친화적인 회원관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회원프로그램에 모바일앱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쌍방향 온라인 활동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지도력·훈련 개발

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 훈련은 독서모임과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교육훈련, 정책워크숍을 통해 코로나 시대와 사단법인 전환, 창립 100년을 준비하는 서울Y에 적합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힘썼습니다.

홍보·재정

홍보는 SNS 중심의 온라인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회보의 주요 칼럼을 오디오로 서비스하는 채널을 개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시민과 소통했습니다.

2021년 서울Y 재정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스포츠센터 축소 운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외부 공모사업의 유지, 임대·대관사업의 예산 달성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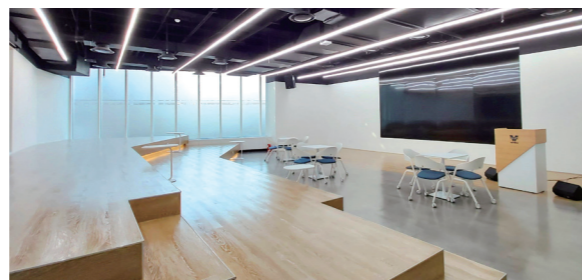
강남 청소년 어울림마당 Online Show 음악중심



메타버스 신규회원 만남의 날



신입실무자 훈련



청소년공간 마루 새 단장

창립 100년 준비

창립 100년을 위한 준비는 비전정책 분과, 회원모금 분과, 기도영성 분과, 조직구조 분과를 꾸준히 운영했습니다. 비전정책 분과는 서울Y에 대한 회원, 시민, 오피니언리더의 인식조사와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서울Y 비전과 정책을 수립했으며, 회원모금 분과는 오랜 준비 끝에 '창립 100년 기금 모금 내일빛 캠페인'을 마련, 이웃의 내일을 밝히고 희망을 전하는 Y기금, W기금, C기금, A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영성 분과는 중보기도회와 화요기도모임, 영성강좌를 활성화하고 창립 100년 기념 회원 성경필사 '씨Bible'을 마무리했으며 기도실을 새 단장했습니다. 조직구조 분과는 창립 100년과 사단법인 전환에 맞는 조직구조를 연구하여 '운동'을 중심으로 실무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창립 100년 너머를 준비하는 'Beyond 100 프로젝트'는 성경통독과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경필사 '손끝으로 만나는 하나님-씨Bible' 봉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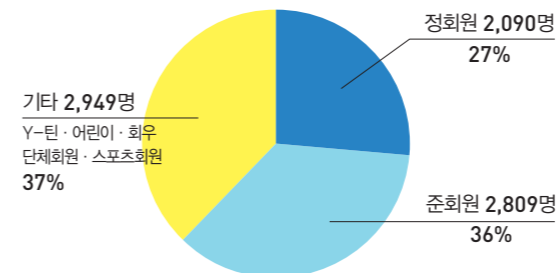


창립 100년 기금 모금 내일빛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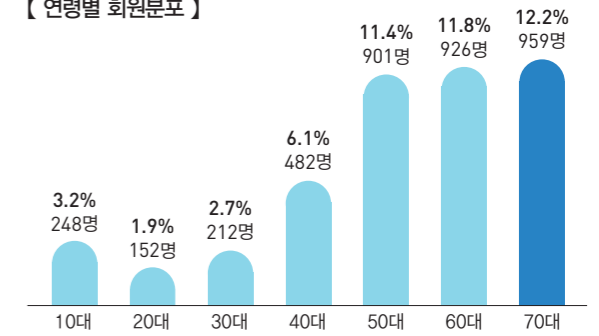
기도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뿌리내리며 '회복'하는 창립 99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이사·위원·회원·자원봉사자·실무활동가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2021년 회원 현황

회원 7,848명



【연령별 회원분포】



※ 연령 미공개 - 3,968명(50.6%)

하나님을 닮은 사람



구미정
기독교 인문학자
승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빙교수
이은교회 목사

우주는 어쩌다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이런 종류의 말은 고백에 속한다. 그리고 고백은 관계를 전제한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아무 관계도 없는 대상에게 다가가 고백 언어를 남발하지는 않을 테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말을 한다는 건 관계와 소통을 의미한다. 말을 건다는 건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명제는 ‘사랑’으로 창조하셨다(creatio ex amor)는 명제와 통한다. 유대인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이를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말로 압축했다.

‘일하는 하나님’과 ‘쉬는 노예’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기 1:4, 10, 12, 18, 21, 25, 31)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건 그런 뜻이다. 절대 긍정, 무한 긍정은 오직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만물에 대해 무려 ‘일곱’ 차례나 좋다고 말씀하신다. 7이라는 숫자를 불길하게 여기던 고대 서남아시아 세계(유럽의 관점에서는 ‘중동’이라 불리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서남아시아에 해당하는데, 성서의 주요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일컫는다)의 문화적 문법에 비추면 ‘동그란 네모’만큼이나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곱 번째 날을 휴일(休息)로 여기는 관습이 팽배한 토양에서 창세기 저자는 은밀하고도 발랄한 혁명을 꿈꾼다. 일곱 번째 날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신들이 확보하는 날이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날이기는커녕, 여섯 날 동안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몸소 쉬시면서 ‘거룩한 날’로 지정하셨기에 사람도 쉬는 날이라고 당돌하게 선포한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쉬는 왕족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노예는 죽자사자 일만 해야지 한가하게 여가를 즐기면 안 되었다. 그런 마당에 패전국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하는 주제에(!) ‘일하는 하나님’과 ‘쉬는 노예’를 상상하다니, 그 자체가 혁명이 아닌가 말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구미정 교수는 일상의 소소한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찾기를 즐긴다. 진지하고 심각한 신학 풍토에 자유롭게 경쾌한 이야기로 생명을 수놓아가는 기독교 인문학자. 지은 책으로는 「한 글자로 신학하기」, 「두 글자로 신학하기」, 「그림으로 신학하기」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교회 다시 살리기」, 「작은 교회가 답이다」, 「생명의 해방」 등이 있다.

사람 사이에 위아래가 있을 수 없다는 믿음

고대 서남아시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들은 「에누마 엘리쉬」나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창조신화를 국경 교과서로 삼았다. 영웅적인 남성 신 마르두크(에레미야 50:2에는 ‘벨’ 또는 ‘마르дук’ 또는 ‘므로닥’으로 나타난다)의 투쟁과 승리 이야기를 담은 「에누마 엘리쉬」는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의 사상교재였다. 그런가 하면 「길가메시 서사시」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꽃인 도시국가 우루크(창세기 11:28에서 아브람 일가가 떠난 땅 ‘우르’가 바로 그곳이다)의 왕 길가메시의 영웅담을 노래하는데, ‘길가메시’라는 이름 자체가 ‘조상이 영웅’이라는 뜻이다. 영웅을 바라는 시대는 독재와 억압을 용인하기 쉽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통했던 이 유도 대다수 독일인이 영웅의 출현을 고대 한 뜻이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주기를 염원하는 심리 밑바닥에는 강자를 선망하고 약자를 혐오하는 집단 무의식이 깔려 있다. 나/우리가족이 잘살고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부

강해지기만 한다면야 너/그들쯤 얼마든지 짓밟혀도 괜찮다는 심보가 영웅 선망을 낳는다.

창조신앙은 이런 고약한 마음새를 고치는 해독제다. 사람 사이에 위아래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이 창조신앙의 알짬을 이룬다. 그래서 늘 위에 있고자 하는 자, 위를 욕망하며 아래를 짓밟는 자들이 조롱의 대상이 된다. 노아 홍수 이야기의 서막에 나오는 “네페림(또는 느벨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창세기 6:4)이 그렇고, 바벨탑 이야기의 서막에 나오는 “니므롯 ...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창세기 10:8)도 그렇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역자요 악인이라고 고발한다.

창조신앙에 따르면, 모름지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形像)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창세기 1:26-27). 성서

는 친절하게도 이 ‘사람’을 특정해 다시 풀이한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으레 ‘남자’, 그것도 노예가 아닌 남자만 들어가니까, 이를테면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함무라비 법전만 해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귀족이면서 남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목숨값에 차별을 두는 게 마르두크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뜻을 박

하나님처럼 생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한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는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세기 1:27)

땅을 갈 사람

‘형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체렘’은 성서에서 대체로 우상을 가리키는 맥락에 사용되는 용어다. 고대 세계에서 형상이 없는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열망을 담아 신의 형상을 제작하기에 바빴다. 이런 노동에는 항상 노예들이 동원되었다. 노예들은 자신들이 섬기지도 못할 신, 자신들을 부리는 지배

자들의 잇속만 불러주는 우상을 제작하기 위해 돌과 나무를 깎고 은과 금을 주형에 붓는 중노동을 해야 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체렘’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사람, 곧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표상한다는 반체제 선언이다. 하나님처럼 생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한다.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까닭은 이처럼 “땅을 갈 사람”(창세기 2:5)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3편이 이어집니다)

* 창립 100년을 맞아 YWCA 정체성인 기독교여성애 주목하고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신학과 윤리를 다시 바라보며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모색합니다

선거철에 보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실화 영화 <서프러제트>



이경순
명예위원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서프러제트
suffragette 2015
제작 엘리슨 오웬, 페이 워드
감독 사라 개브론
각본 애비 모건
출연 캐리 멀리건, 메릴 스트립,
헬레나 본햄 카터
장르 드라마 (107분)
제작국 영국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와 삶

“책 속에 길이 있다”지만 요즘같은 영상 시대에는 영화 속에도 길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를 놓친 영화를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OTT(Over the top media service)시대를 맞아 아무 때나 원하는 영화를 찾아 보는 일이 수월해졌다. 올해 3월은 대통령 선거의 달이다. 투표권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이야기 <서프러제트>를 추천한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라는 뜻의 <Suffragette>는 제작, 감독, 각본 모두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없었던 20세기 초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 에멀린 핑크허스트(메릴 스트립)의 자서전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를 기반으로 하는 실화 영화이다. 그러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참정권 운동의 리더인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난하고 평범한 한 가정의 젊은 주부를 내세우고 있다.

1912년 런던 - 세탁공장에서 일하는 모드 와츠(캐리 멀리건)는 고된 육체노동과 공장 사장의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어린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모드는 어느 날 퇴근 길에 한 여자가 아름답게 장식된 쇼윈도에 돌을 던져 깨부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때까지 거리에서 연설을 하거나 의원들에게 선거법 개정을 호소하는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들이 그들을 무시하는 정치가, 공직자,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과격한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여성 참정권 운동에 눈을 뜨게 된 모드는 적극적으로 운동 대열에 합류하지만, 주위의 비웃음을 사고 남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해 아들조차 못 보게 된다. 오히려 여성의 인권에 대해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을 얻기 위한 여성들의 과격한 저항조차 기득권 언론에 의해 철저히 묵살 당하고, 이에 한 여성은 최후 수단으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경매대회에서 질주하는 말 앞으로 돌진,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 그 충격적인 장면이 찍힌



참정권 쟁취를 위해 거리로 나선 여성들

사진이 신문에 실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이 여성의 처절한 비명에 담긴 절실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영화에서 보듯 여성 참정권은 앞서 간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내쫓기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돌림 받고, 경찰의 곤봉에 얻어맞고 끌려가 구치소와 감옥에 갇히고, 하나뿐인 귀하디 귀한 목숨까지 바치면서 얻어낸 것이다. 미국은 1920년, 영국은 1928년 등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참정권을 인정한 것과 달리, 스위스는 여성들의 거센 투쟁(영화 <거룩한 분노> 참조) 끝에 1971년이 되어서야 겨우 참정권을 얻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48년 남녀 동시에 참정권을 인정 받았으니 목숨 바쳐 쟁취한 서구 여러나라 여성들에 비해 매우 행운인 셈이다. 이처럼 쉽게 얻어서 그런가? 이번 선거에서조차 페미니즘이 조롱거리가 되고 여성혐오와 차별이 대신 구호가 되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까지 나온 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니 110년 전 서프러제트 선배들에게 참으로 면목이 없다. ♣



참정권 운동에 가담했다고 이혼 당하고 아들도 빼앗긴 채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드 와츠



1971년까지도 참정권을 얻지 못한 스위스 여성들의 투쟁을 그린 영화 <거룩한 분노>

사무총장 이·취임예배

새로운 출발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 역대 사무총장의 이름과 재임기간이 새겨진 은목걸이를 한 김양선 신임 사무총장(오른쪽)과 6년간의 임기를 마친 양선희 전임 사무총장(왼쪽)

서울Y 사무총장 이·취임예배가 2월 8일 오후 2시에 비대면(유튜브 생중계)으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지만 유튜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축하와 응원을 전했다. 한혜영 부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조종남 직전회장의 기도로 이어졌고, 설교를 맡은 천영태 목사(정동제일교회 담임)는 신명기 34장 1-12절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리더란, 이웃의 아픔을 보듬으며 이웃의 삶을 꽃피우게 하는 자입니다."

양선희 전임 사무총장이 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한 리더였듯이, 김양선 신임 사무총장도 더욱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산 리더로 하나님께 평가 받기를 축원했다.

양 사무총장은 이임사에서 감사 인사와 함께 서울Y를 찾아온 시민과 회원들이 서울Y를 통해 맛있는 포도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믿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선 22대 사무총장은 이 시간이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는 자리라며 취임사를 통해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하기에 임원, 이사, 선배, 동료 활동가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일하겠습니다. 앞만 보기보다는 옆과 뒤도 둘러보며 이웃과 세상에 관심 가지며 일하는 따뜻한 지도력을 가진 섬기는 사무총장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Y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삶을 꽃피우게 하는 리더의 삶을 살아갈 양선희·김양선 사무총장의 앞날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은다.



봉천

‘알뜰쌀뜰한 우리마을’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1월 26일 설날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10일간 지역주민이 함께 모은 150kg의 쌀로 만든 떡을 복지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337명과 함께 나눴다. 명절을 맞아 마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누리봄

홈커밍 데이

누리봄은 2월 1일 설날 기념 온택트 설 홈커밍 데이 '설레는 그날'을 누리봄 센터 입주자, 주거지원 입주자, 자조모임 퇴소자와 함께했다. 공동모금회와 관악구청이 지원한 쌀, 선물세트 등 푸짐한 명절 선물을 나누고 복주머니에 가족별 소원담기, 설 나기 인증 이벤트 등을 열어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냈다.



노원

찾아가는 새일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2월 7일 노원구 관내 취업협약기관 상계요양보호사교육원을 방문해 2022년 제1회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운영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생·수료생 29명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취업 의욕이 높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등포

취업지원 업무 역량 강화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들은 1월 26일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온라인교육 '워크넷 취업알선 업무 바로 알기' 강의를 함께 수강했다. 워크넷 시스템 활용과 관련해 2022년 변경된 부분을 숙지하고 기존에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으며 취업지원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강남

뮤지컬동아리 공연 <네가 세상에 왔을 때>

강남청소년수련관 뮤지컬동아리 밀레니엄이 1월 28, 29일 양일간 작품 <네가 세상에 왔을 때>를 가나의 집 열림홀에서 선보였다. 밀레니엄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연출까지 직접 준비한 창작뮤지컬로, 이번 공연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청소년 중심의 건강한 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도실 봉헌식

서울Y는 창립 100년의 해를 맞아 기도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1월 25일(화) 봉헌식을 가졌다. 배은경 기도영성분과위원장의 인도로 진행된 봉헌식에서 이유림 회장은 기도실을 찾은 이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생명력으로 온 맘과 몸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하며 기도실이 명실상부한 기도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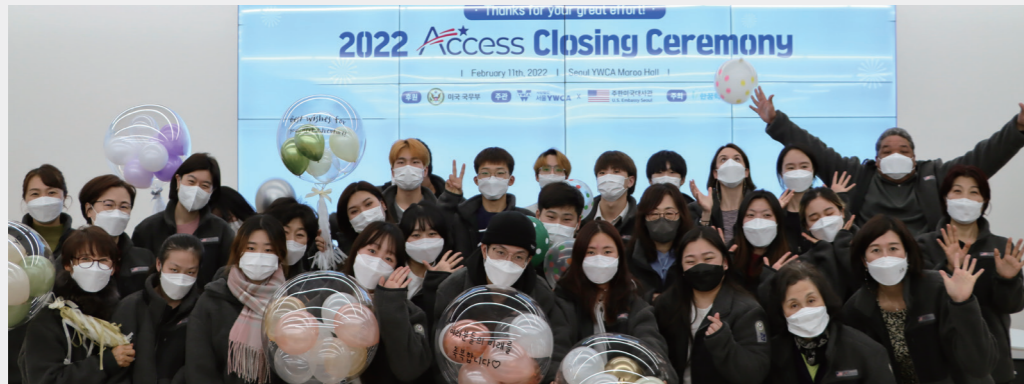
한편, 기도실 리모델링은 시어머니故 한순옥 명예이사를 추모하며 이경연 서울Y 이사(기도영성분과위원회 위원)의 봉헌헌금으로 이루어졌다.



2022 Access 클로징 세레머니

서울Y는 2월 11일 Access 클로징 세레머니를 마무리 열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Access 프로그램에 참여한 24명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성공적 수료를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클로징 세레머니를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마무리되지만 여러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성장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훗날 선한 영향력으로 널리 퍼지기를 소망한다.

Access는 2019년부터 미국 국무부 후원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육성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과 서울Y가 손잡고 한공학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여성 청소년 영양 건강 challenge

서울Y는 1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여성 청소년 147명과 함께 영양 건강 challenge(챌린지)를 진행했다. 회차별 주제에 따라(1회차 연말맞이 '집에서 즐기는 홈파티' 2회차 새해맞이 '한살 더 먹은 우리를 축하해' 3회차 방학맞이 '건강한 집밥이 최고야' 4회차 졸업맞이 'Y언니들이 너의 미래를 응원해' 5회차 개학맞이 '한 뼉 성장한 너희를 응원해') 기획된 영양 건강 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식습관의 격차와 결식률이 높아진 돌봄 위기에 놓인 여성 청소년도 함께 참여, 계층의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했다.

영양 건강 challenge는 하나금융나눔재단이 후원하는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젝트 'Better Life for Girls'의 일환이며 참가 여성 청소년의 높은 만족도로 2022년 시즌2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서울Y는 창립 100년을 맞이하며 중보기도회를 매월 온라인으로 연다

	3월	4월
• 일시	3월 17일(목) 19:00	4월 21일(목) 19:00
• 주관	강남청소년수련관	누리봄
• 문의	02-544-9725	02-888-7983

노원 신규프로그램 •문의 02-951-0187

과정명	일정
헤어드라이 기초반	3월 4일-4월 15일 (매주 월-금) 10:00-13:00
쇼핑몰운영 및 디자인 (카페24+포토샵+상세페이지)	3월 15일-6월 3일 (매주 화목금) 14:00-18:00
커피바리스타1급 자격증 취득과정	4월 6일-5월 4일 (매주 월수금) 19:00-22:00
디저트 메뉴 실습(케이크)	4월 6일-5월 11일 (매주 수) 19:00-22:00

* 교육비 별도 : 내일배움카드 결제 시 할인

영등포 원데이 클래스 •문의 02-858-4514

과정명	교육비
방과 후 주산암산지도사 (주산을 활용한 계산 및 암산 교육법)	3월 17일-4월 8일 (매주 목금) 10:00-13:00
컴퓨터 기초와 문서작성 (컴퓨터, 인터넷 활용 기초와 기본 한글문서 작성법)	3월 15일-4월 14일 (매주 화목) 14:00-18:00

* 교육비 별도

청(소)년평화통일기획단 Peace Talk Talk 신입 회원모집



Peace Talk Talk(피스톡톡)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평화활동에 참여해 평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한다.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

- 청(소)년 평화 아카데미
-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이야기 마당
- DMZ 평화걷기
- 코리아디아스포라 연대체 활동

지원·선발 과정

1. 온라인 지원 : QR코드 접속 구글폼 작성(3월 17일까지)
2. 면접 : Zoom 비대면 진행(1차 서류합격자 개별 연락)
3. 최종발표 : 면접 후 2-3일 내 개별 연락

* 자세한 사항은 서울Y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평화운동팀 02-3705-6023
sywcayouth@naver.com



CALENDAR

2022 **3**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3 위원회 재정부 11:00	4	5 · 싱크머니 OT 13:00
7	8 이사회 10:00	9 20대 대통령선거	1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00	11	12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26일) 14: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26일) 10:00
14 위원회 역대이사 11:30	15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6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17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19:00	18 위원회 강남Y 11:00	19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그란Y OT 13:00 · 싱크머니 정기모임 13:00
21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22	23 · 누리봄 봄블레스유 15:00	24	25	26 · 피스톡독 OT 11:00
28 위원회 봉천Y 11:00	29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30	31 · 이사· 위원 연구모임		

CALENDAR

2022 **4**

월	화	수	목	금	토
				1	2 · 그란Y 정기모임(16일) 13:00 · 싱크머니 정기모임(16일) 13:00
4	5 위원회 재정부 11:00	6	7	8	9 · 여성능력개발팀 회원소풍 9:00 · 피스톡독 정기모임 11:0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23일) 14: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11 위원회 역대이사 11:30	12 이사회 10:00	13	14	15 위원회 강남Y 11:00	16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18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19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20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 누리봄 이달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15:00	21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간병사 13:00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19:00	22	23
25 위원회 봉천Y 11:00	26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7	28	29	30

(사)서울YWCA 창립 100년 기금 후원

이웃의 내일을 밝혀 주세요



힘들고 지칠 땐 작은 빛 하나에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내일을 밝혀주세요

서울YWCA 나눔 100년

희망을 전하는 내일 빛이 되어주세요

Y 기금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 자립준비 교육 (금융·진로·인문학교육 등)
- 1:1 멘토링 (정서적 지지·일상생활 가이드)
- 장학금·생활안정자금 지원
- 법률 자문 연계

W 기금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공동작업장 상시판매소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직업훈련
- 가정폭력피해여성 아동 생활 지원

C 기금

기후위기 재난피해 빈곤노인 지원

- 혹한·혹서기 냉난방 물품, 전기·가스요금 지원
- 건강키트, 영양식사 제공
- 기후재난 긴급지원 (의료품, 생존기금 등)

A 기금

서울YWCA 후원

- 서울YWCA 고유 목적사업 후원 (여성인권·기후위기대응·청소년 지원사업·평화운동 등)
- 지속가능한 서울YWCA를 위한 후원

후원금 입금계좌
농협은행 317-2021-0710-91 문의 02-3705-6034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캠페인 소개 영상 보기



2022년 위원장·부위원장 임명

2월 8일(화) 열린 이사회에서 이유림 회장은 16개 상임위원회, 7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이다.

임원회

회장 이유림 부회장 한혜영 조연신
서기이사 이복희 정수경
회계이사 최한나 김재신
사무총장 김양선

법인사무팀

국장 민혜경
부장 김미현 박혜리 간사 최명진

상임위원회

인사·지도자양성부

위원장 한혜영 사무총장 김양선

재정부

위원장 조연신 사무총장 김양선
부장 박미용 간사 백승자 배진영

여성참여팀

위원장 황성연 부위원장 전현숙
국장 최 불 부장 김예리 간사 이기쁨

회원활동팀

위원장 이은령 부위원장 이희전
국장 민혜경 부장 김경화 간사 강수미

청소년팀

위원장 최한나 부위원장 배정미
국장 최 불 부장 양진화 간사 안지선

국제협력팀

위원장 이복희 부위원장 송길례
국장 최 불 간사 김진주

소비자환경팀

위원장 김선희
국장 최 불 부장 박진선 간사 김보민

시설운영·사업팀

위원장 김명희 부위원장 임혜원
국장 민혜경 부장 오점희 간사 박은지

평생체육팀

위원장 나순복 부위원장 이지선
국장 민혜경 팀장 오경아

여성능력개발팀

위원장 이옥희
국장 김혜옥 부장 이인순 팀장 정승원
간사 윤희경 사무직원 박은숙

홍보출판팀

위원장 배은경
국장 민혜경 부장 성지희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황혜진 부위원장 현명금
관장 김은희 부장 김혜진
과장 김철민 황윤희
팀장 김유진 최지희
사회복지사 김예솔 황소영
정유진 최민영 황윤수 김지호
이연수 이정훈 박가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김재신 관장 강민아
부장 방윤옥 과장 성윤수
팀장 백미리 박미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이경연 관장 유영숙
부장 김현일 과장 성호숙 팀장 구수영
간사 이유리 이연서 최선미

누리봄

위원장 정수경 관장 백옥선
사회복지사 윤미소 유현숙 이혜원
이은희 박선정 류소리

강남청소년수련관

위원장 정선덕 부위원장 백향덕
관장 이종미 과장 심혜영
팀장 강주현 이슬기
청소년지도사 김소망 정한솔 최유정 오영선
다함께키움센터(청담) 센터장 김미라

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조종남

장학위원회

위원장 나순복

특별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국장 최 불

회원증모위원회

위원장 정수경 관장 백옥선

큰장날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국장 민혜경

회원권기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나순복 관장 김은희

복지사업단

위원장 한혜영 국장 최 불

창립 100년 분과위원회

행사분과 위원장 한혜영 국장 최 불

모금분과 위원장 조연신 국장 민혜경

기도분과 위원장 김재신 국장 김혜옥

100년사 출판분과 위원장 배은경 국장 민혜경

회원 소식

양선희 21대 사무총장 퇴임



양선희 사무총장이 1월 31일 퇴임했다. 양 사무총장은 1997년 서울Y에 입사하여 사회문제부, 홍보출판부 간사를 시작으로 강남청소년수련관 관장, 행정국·생명운동국·국제협력국 국장을 거쳐 2016년부터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김양선 22대 사무총장 취임



김양선 신입 사무총장은 1995년 서울Y에 입사하여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차장,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행정국·YWCA 복지사업단 서울지부 국장을 거쳐 2022년 2월 1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2022년 새롭게 선출된 임원을 알려 드립니다

대학·청년YWCA협의회

회장 고태은(동국대대학원, 피스톡톡)
부회장 김태연(연세대, 싱크머니)
서기 이송학(이화여대, 소리모아)

Y-틴 협의회

회장 김태희(동구마케팅고, 울력)
부회장 양채림(동구마케팅고, 울력)
서기 정민지(이화미디어고, 온새미로)

2021년 생활돌보미 제명 회원

여성능력개발팀은 재교육 장기결석이나 활동부진, 자진탈퇴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회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사돌보미 22명

강순희 강유순 권영선 김명자 김향숙 노영순 박미경 박외희 박정자 배현원 이경현 이성배 이영숙 이영희 장금자 정영숙 조성순 최계숙 최영희 최정김 흥윤자 황정숙

산후조리사 5명

김광임 김미형 민난숙 이춘자 정계득

세이프맘 8명

김정심 왕애려 윤지은 이수목 이영숙 이영자 전수자 정현숙

아기돌보미 11명

김영선 김화자 박영숙 박하연 박효민 송계홍 안영란 은정수 이지숙 정혜연 최미남

간병사 1명

강경애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3월 17일(목) 4월 21일(목) 10:00-18:00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아기돌보미	60세 이하 여성		
세이프맘	60세 이하 여성	3월 10일(목) 4월 21일(목) 13:00-18:00	4만원
간병사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

세상의 모든 주름을 위한 레티놀라운 진화

| 아이오펀 레티놀 엑스퍼트 |



IOPE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2022년 1월

도너월 업그레이드



- Y-Partner Club(5천만원 이상) 한혜영
- Y-Friend Club(1천만원 이상) 이경연
- Y-Club(5백만원 이상) 송길례 박소현 우영숙

특별후원



일시후원

- 장학금 이유림
- 큰장날 찬조금 이희전 정영숙

재능 기부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 2022년 1·2월 회보 '예술과 여성' 칼럼 기고

복멘토링 후원



권은정 김나은 김난희 김민아 김상희(김한나) 김선자 김성연
 김은순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나순복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연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여현주 염미연 염현경 우영숙
 월요까페 이명아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나미 주동일 최동수 최 불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내일빛 캠페인



일시후원

김숙희 김영심 박두영 송길례 오세연(한국직업능력진흥원)
 우영숙 이강희 이경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전현숙 정동제일교회 정수경 최수경

정기후원

구영숙 김정순 박대화 배정미 송순옥 염현경 우정현 월요까페
 이재림 이홍자 임은유 임지영 정수경 조순영 조종남 채서은
 최경자 오경아 이윤선 최유진

* 2022년 1월부터 난민소녀 학교보내기, 핑크박스 후원사업이
 내일빛 캠페인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일반후원



강명희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곽민규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용관 김윤희 김인복
 김중환 김현경 김 형 김효신 민혜경 박시현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혜리 배은경 서혜영 석성옥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양진화 오세연 오준호 우영숙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관우 이애진 이옥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종미 이행자 임중현 장경미 장민경 장수자 정석용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종남 지복임 채재호 최 불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 2022년 1월부터 YWCA 복지사업단 후원금이
 (사)서울YWCA 후원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월 CMS 후원



강경아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민아 강보경 강성길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옥수 강유민 강윤정
 강인지 강일훈 강주현 강진희 강창석 강춘호 강종모 강하자
 강형식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성희 고유나 고은경 고은정
 고은희 고인미 고재옥 고현진 고홍애 고희준 공명주 공우재
 광동윤 광민정 광승희 광지영 광지훈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오상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혁준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경금 김경미
 홍학희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화
 김관옥 김관채 김광수 김귀숙 김규영 김규진 김기연 김기욱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진 김도근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동희 김두희 김라엘 김량순 김명후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숙 김미재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경 김민선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희 김보라 김보미 김보민 김보현
 김복자 김봉근 김봉희 김석한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용 김세진 김소담 김소망 김소영 김소은 김소인
 김소정 김소희 김수연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찬 김시은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연정 김예스터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순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해 김예지 한이수
 김옥민 김용갑 김용관 김용민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진 김윤나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은희 김익동 김지희 김재경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연 김재진 김정구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순 김정애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현
 김정화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운 김종진 김종하 김주나
 김주리 김주한 김준희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희 김 진 김진숙 김진주 김진향 김진호 김창배 김창섭
 김채담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현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김평배 김학희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현경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민 김형숙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정 김혜진 김호진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효숙 김효은

김 훈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준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상화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미선
 노정자 노혜환 노희수 당효성 동지현 류소리 류종철 류 혁
 류형정 맹지혜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상규 문현숙
 문형규 민경술 민동성 민명자 민선기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박갑년 박강규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일
 박광택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노영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란 박미애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영 박선옥 박선주 박성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영
 박소윤 박소현 박솔희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신환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솔
 박은별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인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현 박주희 박준성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아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경 박현선 박현숙 박혜자
 박휴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방윤옥 방윤우 방은영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정숙 김정기 배진영 배호성 백미리 백민경 백옥선 백인성
 백 준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산드라운
 서근배 서미화 서반석 서빛나 서상희 서영미 서욱덕 서우정
 서은경 서정순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춘자 서현옥 서현정
 서효옥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선점환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은숙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선희 송세실 송예나
 송욱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민 송정민 송종우 송지은 송창울
 송창은 송태연 송하윤 송혜승 송혜현 송효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동하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연식 신영순 신용자
 신지숙 신지윤 신청희 신총섭 신현미 심경호 심다영 심영란
 심재원 심정자 심하선 심하영 안병수 안성원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신 안영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재숙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양기혁
 양명옥 양세진 양수정 양여경 양영순 양영애 양영호 양정은
 양종숙 양현옥 엄경자 엄금란 엄수길 여명진 염명경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미영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점희 오지영 오형래 온기석 왕정환 왕창식
 윤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은미 우재하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동미

유명숙 유문형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승연 유연숙
 유예목 유원균 유은경 유은정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진선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교회 윤동연 윤동원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서희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수화 윤순민
 윤아름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정향 윤정화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령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계숙 이광희 이규택 이금자 이금재 이금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돈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이동은 이동현 이명순 이명종 이명혜 이명호 이미숙
 이미지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자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서현
 이석초 이선덕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희 이성우 이소영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진 이숙영 이순영 이순옥
 이수우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재 이승철 이승한
 이승현 이승혜 이승희 이시현 이신현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양출 이연서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순 이옥경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재강 이재건 이재경
 이재욱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숙 이종욱 이좌녕 이주연 이주형
 이증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운 이지현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진이 이창준 이창희 이채진 이춘옥 이춘원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행남 이행자 이한국 이현심 이현아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진 이희남
 이희전 인치남 임경희 임광택 임동인 임등자 임병남 임병일
 임선녀 임성은 임성준 임성희 임소영 임연수 임은유 임완철
 임재영 임정자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준호 임중현
 임지현 임지혜 임현정 임현주 임혜리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수용 장순복 장승화 장용익

장윤정 장주연 장철승 장한수 장현주 장혜미 장혜숙 장혜영
 전덕기 전민구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화 전유오 전문숙
 전은경 전은미 전인옥 전재수 전행옥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미선 정민선 정상미 정상아 정새와
 감운우 감윤익 정서진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소희 정수경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영수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유리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준선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한솔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승 정혜윤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길수 조남익 조명희 조미선 조미숙 조성미
 조성빈 조성진 조성호 조세환 조시원 조연선 조예은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진희
 조하은 조혜성 조혜전 조호선 조홍신 좌혜선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영숙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지경표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영선 차경희 차성호 차지혜 차학주 채송화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민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최 불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희 최순태 최승동 최승미
 최승민 최신지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운은 최운영 최윤정
 최윤서 최윤주 최유행 최은주 최재국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희 최현경 최혜원 최희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한경희 한규철 한다정 한민희
 한성우 한숙희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윤경 한인선 한재희
 한 정 한정우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함화순 허경희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자영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은순 홍경화 홍성희 홍수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지애 홍진기 홍현표 홍호성 황경희 황명숙
 황미영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마초희 최지은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은경 황주혜
 (주)시공디자인 (주)제이티 중앙이엔씨 (주)체협람

더 새롭게 더 강력하게 더 수려한 더 블랙세럼

블랙 효모™의 에너지를 담은 1천5백만 개의 엑소좀,
진보된 안티에이징의 시작



*엑소좀은 효모모 발효물 속 유효 성분입니다. 정량 60ml 기준 엑소좀 비티클 수 : 60ml x 0.25 / 100 x 108 particles/ml = 1.5 x 107

THE
SOORYEHAN
 20TH ANNIVERSARY SIGNATURE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활란 서울YWCA 초대회장 (1888-1984)

여성교육자, 감리교 장로로 알려진 최활란 선생.
1888년 9월 23일 인천에서 태어나 8세에 이화학당에 입학해
1908년 중등과로 진학했다. 이화학당에 정식 졸업 제도가 생긴 후
중등과 졸업증서 제1호를 차지한 이가 바로 최활란이다.

중등과 시절,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귀국해
1910년 이화학당에 설치된 대학과에 입학하여
1915년 2회로 졸업했다.

이화학당에서 수학 교수로 재직했고,
피아노와 율건을 배워 우리나라 최초의
오르간 연주자로 정동제일교회에서 봉사했다.
1913년 최병현 목사의 아들 최재학과 결혼해
이때부터 김활란에서 최활란으로 불렸다.



이화학당 중등과 제1회 졸업식.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최활란
사진_이화여자대학교

최초로 트레머리에 구두를 신어 화제를 낳았던 신여성이자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1922년 12월 9일 본회가 조직될 때 초대회장으로 취임했고 3대 회장직을 역임했다.
태화여자관에서도 일했으며 경성여자기독교절제회 회장,
여성교회 부인협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 밖에 여러 부인클럽을 조직,
문맹 퇴치에도 노력하는 등 여성운동과 전도사업에 몸 바쳤다.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 · 헬스 · 피트니스 3705-6030
돌봄과살림센터 가사돌봄미 · 산후조리사 · 아기돌봄미 3705-6013~5
간병사 858-4516~7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yu.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년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누리봄 www.bongchunyu.or.kr 888-7983